

해남 달마고도 완주자 1000명 돌파

스탬프PELLI 연중 실시... 전국 도보족 '인기'

2017년 11월 개통 이후 18만 여명 다녀가



전국 도보여행의 명소로 여행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남도명품길 해남 달마고도(達摩古道)가 6개월만에 완주자 1000명을 기록했다.

해남군은 지난 3월 말부터 달마고도 스탬프PELLI를 진행해 온 결과, 여수의 이재인씨와 광양의 진선민씨가 17.74km를 완주한 1000번째 주인공이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산악동호회를 통해 달마고도를 알게 됐으며, 지난 8월 함께 달마고도를 찾아 1000번째 완주자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재인씨는 "구간 구간마다 경관이 아름다웠고 달마고도를 완주했다는 성취감이 매우 컸다"며 "맛있는 해남 음식은 물론 해남 분들의 친절함 또한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달마고도 스탬프PELLI는 관음암터, 문수암터, 노지랑굴, 도시랑굴, 물고리재, 너털 등 6개 장소에서 스

탬프를 찍으면 완주 메달과 완주 인증서를 보내주고 있다. 메달에는 완주일자와 완주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달마고도 완주자는 현재 1150여명으로 걷기 여행에 좋은 가을 풍광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전국에서 달마고도를 찾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달마고도는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미항사가 있는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에 이르는 들레길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옛길 그대로 조성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걷기 편하게 조성한 남도 대표 걷기 여행길이다.

2017년 11월 개통 이후 18만여 명의 국내 워킹족이 다녀간 것은 물론 재방문율도 높아 도보여행의 명소로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양파마을사단법인 흥백옹 회장

전보 무안·신안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체험



양파마을사단법인 흥백옹회장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지사장 최순선)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방문 민원인 업무처리, 직원들과 대화 등 특별한 현장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된 흥백옹 회장은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코로나19위기 극복 과정과 보장성 강화 등 세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우수성이 알려졌다"며 "향후 코로나19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 전염병 발생에도 지속적인 의료

체계 유지 등 국민이 매우 만족하고 사랑하는 공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흥 회장은 "지속적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홍보를 위한 홍보물 유포와 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양파 농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순선 지사장은 "국가 건강을 위한 암 검진은 의무가 아닌 필수이다. 현재 국민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의 3위에 해당하는 암,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구성해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파마을사단법인 1,600 농가 회원 여러분부터 시작하여 무안군 전체 농민들로 확장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안·신안지사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험식엔 흥백옹 회장, 박태연 기술고문, 무안군여성단체협의회 김연자 전회장, 한국생활개선 무안군연합회 문영순회장, 한국여성농업인 무안연합회 정안숙 전회장, 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 최순선 지사장이 참석해 의료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무안=김삼호 기자

진도 돌발해충 공동방제

진도군은 과수와 산림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에 대한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은 5월부터 부화해 10월까지 활동하며, 과수의 즙액을 빨아 먹어 가지와 고사시키거나 그 을음병을 유발하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농경지만 방제할 경우 인근 산림으로 피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농경지에 침범함으로써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농경지와 산림지의 공동방제가 필요하다.

진도군은 영암국유림관리소와 협업을 통해 돌발해충이 발생한 군내면 정거름재와 중굴 인근 11ha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해 방제를 실시했으며, 또 농가에 약제를 보급해 동시 방제도 함께 진행했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효과적인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며 "약제를 보급 받은 농가는 반드시 공동방제 기간에 살포해 병해충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강진 작두콩차'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미국·중국 등 세계시장 선점... 국내 인기도 꾸준

강진군(농)도두맘 주식회사 대표 홍여신)에서 생산되는 작두콩차가 국내를 넘어 미국과 중국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농)도두맘주식회사에서 개발한 '마법의 블랙 작두콩차'는 올해 3월에만 2만 달러에 달하는 물량을 중국에 선적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정식으로 입점해 전 세계에 강진산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등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시장을 개척한 (농)도두맘주식회사의 해외시장 진출사에는 농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모델이 되고 있다.

(농)도두맘주식회사의 작두콩차는 농약 대신 미생물을 활용하는 EM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 인증과 GAP인증까지 획득했다. EM농법은 천연 재료를 발효시켜 그 발효액을 물에 희석해 땅에 주입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상품의 맛과 질을 한 단계 높여준다. 홍여신 대표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이지만 강진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해외시장 선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큰 도움이 됐다"며 유통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작두콩이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영암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선정

구림책갈피' 등 4종 선정

영암군은 우수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해 실시한 '영암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품을 지난 23일 최종 선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이 주최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영암군 특성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해 관광산업 활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난 5월 11일부

터 6월 19일까지 작품을 공모했다. 군은 지난 10일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위해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암군에 거주지를 둔 출품인 총 29점의 출품작 중 총 4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군조(郡鳥)인 구림마을 비둘기 날개를 형상화한 '구림책갈피'(구림문화예술원), 우수상에는 영암의 전통 선비 갖을 주제로 한 인형소품 '갓 헤어핀'(캔들만드는 예쁜연

니), 장려상에는 큰바위 얼굴을 스키에 치한 세트 상품 '마우스패드, 안경대, 컵'(함께 크는 희망한지 협동조합)과 영암군 캐릭터인 기찬이&기순이를 모티브로 한 '그립톡, 마우스패드'(영암푸른돌협동조합)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각 수상자는 표창과 함께 대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다.

영암=김영두 기자

완도 지방자치경영대전 2년 연속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완도군은 최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경제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일자리 창출·문화관광 등 10개 분야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93개 지자체에서 235개 사례를 응모했다.

완도군은 청정 해양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청정바다 완도의 이미지를

살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관리팀을 운영하는 등 뛰어난 정책으로 지역 경제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치유·해양바이오산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이무식 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